

SKC, LCD 가격하락 영향 “막대”

삼성증권, LCD필름 가격 연평균 5-10% 하락 ... 목표주가 1만500원

삼성증권이 SKC에 대해 “주력제품 중 하나인 LCD용 필름의 가격하락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2/4분기에는 물론 3/4분기 이후에도 영업실적 회복추세가 지속될 것”으로 보고 <매수> 의견을 유지한다고 밝혔다.

삼성증권은 6월22일 SKC에 대한 코멘트에서 “LCD의 가격하락 전망에도 불구하고 광학산 필름 등 LCD용 필름의 가격 하락폭은 연평균 5-10%에 그칠 것”으로 분석하고 “2/4분기 영업이익이 1/4분기보다 47% 늘어날 전망이다” 3/4분기 이후에도 실적회복 추세가 지속될 것”이라고 전망했다.

아울러 최근 SKC 주가의 악세요인이었던 계열사 SK케미칼의 자금 위기설에 대해 “SKC측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도 SKC에 미치는 피해는 미미할 전망”이라며 현 주가가 실적이나 악재의 강도에 비해 과도하게 조정된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.

다만, 삼성증권은 SKC의 이익전망 하향을 반영해 6개월 목표주가는 기존 1만5000원에서 1만500원으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.

<화학저널 2004/06/23>